

## ● 협회, IT특보초청 간담회 가져

- 병역특례제도 연장 및 SW분리발주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 오고가

협회는 지난 11월 12일 오해석 IT특별보좌관을 초청, 벤처기업인들과 업계의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로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오 특보는 벤처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명하며 참가 벤처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벤처기업인들은 다양한 업계의 과제들을 오 특보에게 요청했다. 인포뱅크 박태형 대표는 2012년 종료되는 병역특례제도의 지속적인 지원 및 SW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의 특수성을 인정해 연구소 근무 가능여부를 건의하였다. 또한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의 중



견벤처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및 정책적 지원 요청에 오 특보는 공감을 표명하며 중견기업육성시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형 SI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SW재하청시 너무 낮은 마진을 요구해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공공기관 역시 업무편의성으로 인해 SW분리발주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오 특보는 대형 SI가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 프로젝트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병기 대표는 수출입 은행 등의 소액차관 확대 및 차관도입기간단축을 건의하였으며, 정태국 대표는 해외근로자 활용 시 업체별 도입인원의 할당 확대를 요청하였다.

지난 8월 선임된 오해석 IT특별보좌관은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로 국내 IT산업 역사의 '1세대' 인물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수료한 뒤 숭실대 중앙전자계산소 소장을 맡았다. 이후 1997년 숭실대 부총장을 지낸 후 2004년 경원대 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번 정부 첫 IT특보로 임명되었다.

## ● 'Green Software' 홍보책자 발간

협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해법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그린소프트웨어의 저변 확대 및 활용 확산을 위해 'Green Software'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그린소프트웨어는 기업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저전력 시스템으로 구현해주고 업무과정을 지능화, 자동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최근 지구온난화 가속, 에너지 가격 상승, 국제 환경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린화'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으며, 전 산업에서 에너지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낭비되는 요인들을 감소시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린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보책자에는 그린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린소프트웨어 유형 및 활용사례들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홍보책자는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venture.or.kr)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